

## “지방 살면 ‘2류 국민’인가”

### 폭등 서울 집값에 지역민들 박탈감 심각 광주 2억 아파트 팔아도 서울 전세 못구해

지방사람들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바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는 ‘집값 광풍’ 때문이다.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달새 역대 이상 뛰어 오르는 부동산 폭등을 지켜보는 광주·전남지역 등 지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지방 주민들은 날로 커져만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집값 격차로 인해 수도권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지방민들을 ‘이류국민’ ‘신빈곤층’으로 전락시켰다”며 분노하고 있다.  
13일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홈페이지는 “지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최근 청와대 브리핑이 공개된 이후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항의성 글로 도배되고 있다. 신도시 건설 발표 이후 수도권 집값 폭등에 불만이 높던 상황에서 또 한번 지역간 양극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이후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과 수도권간 격차가 날로 심

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값은 12.7%나 급등해 부동산정책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는 같은 기간 2.3% 오른 전국광역시 평균의 무려 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수도권의 집값 ‘광풍’이 도를 넘어섰음을 나타낸다. 심지어 부동산정책의 ‘타깃’인 강남은 같은 기간 17.9% 폭등하면서 오히려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실제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G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3년 입주 당시 17억9천만원에서 현재는 35억2천500만

원까지 값이 뛰었다. 입주 이후 3년여간 7차례의 부동산정책을 거치면서 집값이 두 배가 된 것이다. 최근 강남 주민 사이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서는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고 나면’ 수천만원이 오르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집값이 오르기는 커녕 분양가를 밀도는 이른바 ‘강풍아파트’가 등장한 것이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 W아파트의 경우 34평형의 시세가 분양가 1억6천847만원보다 347만원이 싼 1억6천500만원으로 떨어졌다. 또 서구 금호동 C아파트는 분양가보다 500만원 가량 떨어진 2억4천550만원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한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능 D-2...문답지 도착 13일 오후 5시경 담양교육청에 도착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경찰관 입회하에 옮기고 있다. /4명기자 mjna@kwangju.co.kr

## “전효숙 인준’ 절차 밟아라”

### 광주·전남지역민 국회에 요구...“민주·민노 당리당략 버려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수호기관 현재의 권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 후보자 국회 인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반대를 국회 인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행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13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비상대책 회의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모두 해소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 유례없는 헌법기관 권위 사태를 끝낼 수 있을 바란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영호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후보자 국회 인준을)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반드시 지지하겠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인준 반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한나라

당은 단상점거는 물론, 헌법소원과 현재 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버리고 있다.  
전 후보자 국회 인준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은 명확한 당론을 밝히지 않고 표결 직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태정 국회의장도 정치적 부담 등으로 직권 상정에 신중을 모음을 보이고 있어 결국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 현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또다시 정쟁에 의해 표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지역 여론은 ‘절차적 문제가 해소됐으므로 국회는 헌법기관 권위 사태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영호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후보자 국회 인준을)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반드시 지지하겠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인준 반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한나라

있다. 현재소장 공백이 두 달이 넘어선데다 정쟁 등에 의해 또 다시 현재 소장 임명이 무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 추락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전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한 때 논란이 됐던 ‘한·민 공조’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전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참여하겠다는 민노당에 대해서도 지극히 ‘당리당략적인 태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승철 광주공연**  
12월16일(토) 오후 7:30 광주염주체육관  
광주일보사 (062)220-0511, 1544-1216

## PSI 참여 공식 거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정부 “6자회담 재개 상황 보며 조정”

정부는 1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 방안 중 참여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PSI(확산방지구상)와 관련,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한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또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요구한 ‘PSI 정식참여’를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적 상거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은 안보 리 결의와 상관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시 적극 추진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치 유지 등 조치를 신설 또는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등 전 반적 상황을 보가면서 정부 조치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이미 시행중인 당국 차원의 쌀·비료 지원 유보 조치와 철도·도로 자재 및 장비 인도 중단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경공업 원자재 제공, 지하자원 공동개발, 한강하구 개발사업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사회·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남북단일팀 구성, 문화재 복원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개성공단 북측근로자에 대한 임금직불 조치

## 日, 자살 충격 2명 이지메 비관 자살 초교 교장도 목숨 끊어

동료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처리리 자살하겠다는 의결의 편지 때문에 일본 전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두 명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교육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교장까지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일본 열도 전체가 이지메 자살 공포에 휩싸이는가 하면 교육당국은 유사사태 재발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12일 일본 사이타마현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숨진 것을 가족들이 발견했다. 오사카에서는 중학교 2학년 여 학생이 자살했다. <연습뉴스>

후원학원 장학55년 역사만 자랑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8월15일 062-971-0114 ▶ T.062-971-5000-9  
새로운 담사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im.ac.kr  
▶ 8월15일 062-971-0114 ▶ T.062-971-5000-9

**광주일보 수습기자 원서마감 내일 오후 6시**

**11월 17일 모델하우스 OPEN**

**Blue City**

문의 (062)523-2007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수업자료 보내줄까  
**단지상기분양**

문의 (062)511-0007